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03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5월 16일 (음력 4월 2일) 수요일

## 민주당-평화당, 텃밭 광주·전남 공천 잡음

6·1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광주·전남에서 공천 잡음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15일 광주·전남 지역선거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과 텃밭 사수에 나선 평화당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를 중심으로 불공정 경선과 지도부의 일방통행식 공천에 반발, 탈당과 무소속 출마 등 후유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경선에서 잡음이 크다. 동구 양혜령, 서구 임우진, 광산구 장성수 후보가 무원칙한 공천과 고무줄 잣대 등에 반발해 탈당을 강행했다. 양 후보는 바른미래당으로 당을 갈아 탄 뒤 체급을 낮춰 광주시에 출마표를 냈다. 현 서구청장인 임 후보와 광산 장 후보는 탈당 후 무소속 구청장에 출마표를 냈다.

양 후보는 "2010년 시의원 경선 불복과 관련해 4년 전에는 해명이 받아 들여져 25% 여성 가점을 받았는데 이번엔 20% 감점했고 시장 후보 탈당 전력 10% 감점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결국 양혜령 죽이기 경선"이라고 반발했다.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전력으로 컷오프된 임 청장은 "민주당 지도부의 후보 검증이 지역 민심을 물론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한 공천 하살 적폐"

더불어민주당, 컷오프·경선 반발 '탈당 도미노'

전국 첫 청년비례대표·서구갑 재선거도 '뒤탈'

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중앙당 방침에 따라 현직이 컷오프된 가운데 1996, 1998, 1999년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각각 100만원, 300만원,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후보자가 당 후보로 최종 결정되면서 우려했던 뒤탈이 현실화했다.

또 전남에서는 사실상 전라공천에 반발해 경선을 준비하던 최진 후보 등이 거세게 항의했고, 북구에서는 후보단일화를 놓고 적진 분열이 벌어지면서 관료 출신 문인 후보가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전남에서는 임흥민 신인군수 후보가 구시대적 전라공천에 반발, 탈당 후 무소속 군수 출마를 선언했고, 권오봉 여수시장에 비후보도 경선 불공정 등을 문제 삼아 민주당 옷을 벗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또 광양외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서경식 후보와 광양시의원 가 선거구 이기연 후보가 권리당원 100% 선거에 따른 갑갑이 불공정 경선을 이유로 탈당계를 제출하는 등 광역, 기초의회에서도 반발이 드세다.이밖

에 합평, 여수 강진 등 일부 지역에서도 광역의원 후보들의 뺄소니 벌금형, 사기죄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등이 불거지는 등 뒤탈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재선거와 전국 최초 광역의회 청년비례를 두고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서구갑 재선거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박해자 전 의원 측은 "송갑석 후보 측이 경선 과정에서 유포한 (서구갑) 2차례 여성 전라공천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중앙당의 수사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지검, 서부경찰서에서 고소사건으로 수사 또는 조사 중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광역의원 청년비례대표제는 후보 자격 시비에 휘말리면서 공정성 논란을 낳고 있다. 국회의사당 놓고 보면 '호남 여당' 격인 민주당도 잡음이 만만찮다.

고길호 신인군수는 당이 전라공천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정연선 전 전남도

위원을 단수공천하자 이에 반발, 탈당 후 무소속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그는 "평화당 출범 당시 이전 지구당위원장으로부터 전라공천을 약속받았으나 정치구도가 바뀌면서 꼬였다"며 "지난 4년간 지방의원들과 준비해온 지방자치의 기본틀을 성사시키고 싶어 전라공천을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고 무소속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김재훈 무안군수 예비후보도 "지난달 1일 평화당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1200명의 당원을 모집하며 열심히 노력했으나 당 지도부가 자기 자신만의 사익을 위해 공당에선 있을 수 없는 모습들을 보여 부득이 탈당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순천에서는 손훈도 예비후보가 "현행 정당공천제로는 민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탈당배경을 우회적으로 밝힌 채당을 나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지역선거 관계자는 "시민은 없고 당원만 있고, 가산과 감산 적용 여부도 공개되지 않는 최악의 감각이 선거에다 기준마저 오락가락하는 고무줄경선 탓에 후유증도 큰 것 같다"며 "유권자인 시민들을 우선 배려하고 민심을 먼저 헤아리는 성숙한 모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체면때문에...

국인 10명 중 8명이 국회 파행에 책임을지고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14일 4월 세비를 반납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당은 국회 파행이 정당화될 수 없게끔 8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약속한 후 현재까지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리얼미터의 발표에 따르면 CBS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8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결과 국회 파행과 관련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응답이 81.3%로 집계됐다. 관련 인사들의 속마음을 상상해 본다.

서은홍 · 자료사진=뉴시스



정세균



홍준표



정세균

## 남해화학 원·하청 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 출범



남해화학 원·하청 노동조합 대표자 협의회가 지난 14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이날 출범한 남해화학 원·하청 노동조합 대표자 협의회는 원정업체인 남해화학

노동조합(위원장 최용선)과 하청업체인 남우진흥, 대륙기업, 여수종합합운, 하이팩 등의 노동조합으로 구성됐다.

여수 소재 남해화학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가진 이날 출범식에는 원·하청업체

관계자를 비롯해 최산신 한국노총 전남본부 사무국장, 주종만 여수지역지부 의장 등이 참석했다.

출범식을 가진 원·하청 노조 대표자들은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노·사·노·노간 협력을 강화하고 문제해결에 힘쓰는 한편 상생의 노사문화를 조성해 남해화학의 발전에 기여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지난 14일 출범식 갖고 노사 동반성장 피하기로

지속적 연대와 소통 통한 현안문제 해결 노력도

다. 최용선 남해화학노조 위원장은 "원·하청간 노조 대표자 협의회 회의를 정례화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소통 부재를 과감히 털어내고 상생 협력하는 자세로 회사와 더불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교섭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순중 여수종합합운 노조위원장은 "하청업체 종사자들의 애로와 고민에 대해 원정 노조의 양보와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며 "원·하청간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지 등의 격차를 해소하여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최산신 국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한국 노총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가치 구현, 노동중심 임금, 소득주도 성장 전략 등을 사회적으로 확산하여 노동이 존중되

여수=송기홍 기자



값싸고 질 좋은 장흥한우

